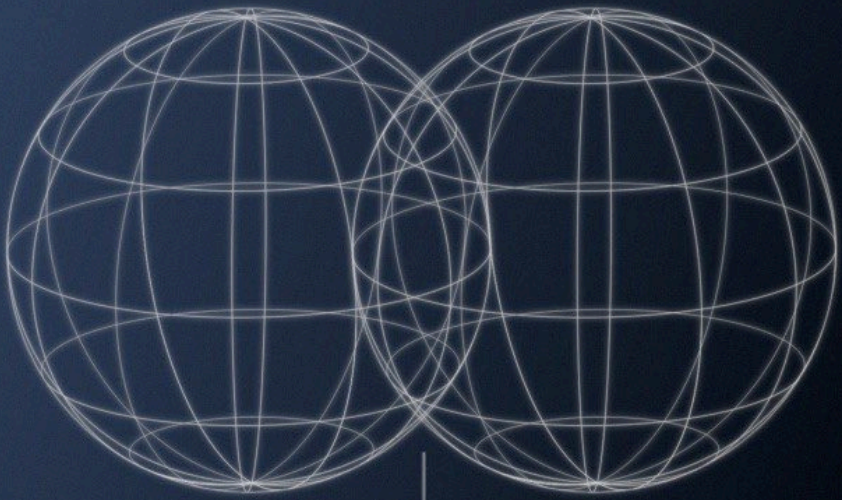
2022 녹원 66호 교지

overlap



우주의 중첩

of our universe

녹원 66호 교지

우주의 중첩

우주의 중첩;
올해 주제였던 기술과 인문학 분야는
완전히 다른 세계(우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번 녹원 활동을 통해 기술과 인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두 우주를 융합할 수 있었음

녹원 66기

고보경
권나현
권민경
김별
김정림
배숙경
서아림
유수정
이유민
전예원
정혜인
조연수

목차

1부

〈밈(meme)이 어려운 당신에게!
이럴 때는 이런 밈을 써보세요
-밈 백과사전〉 (정혜인) ····· 8

Last dAy oN EaRTh
하이데거의 현존재 관점에서 본 영화
〈돈룩업〉 속 아포칼립스 세상 (전예원) ····· 12

여행자들 (유수정) ····· 16

알바생의 수기 (서아림) ····· 20

방구석 I열 : MBTI 미니 감상회
(권민경 배숙경 조연수) ····· 24

당일치기 서울 여행 에세이
인사동에서 전통 먹거리 체험하기
(이유민, 권나현, 김정림, 고보경) ····· 33

공원 괴담 (김별, 배숙경) ····· 48

2부

녹원 메타버스 전시회 후기-여돌전성기 (정혜인)····· 58

메타버스 전시회를 마치며 (전예원) ····· 60

녹원 전시 후기 (유수정) ····· 62

메타버스 전시 후기 (서아림) ····· 64

녹원 메타버스 전시 후기 (김별) ····· 67

메타버스 생존기 (권민경, 배숙경, 조연수) ····· 69

전시 후기 (권나현, 김정림, 고보경) ····· 75

1부

〈밈(meme)이 어려운 당신에게! 이럴 때는 이런 밈을 써보세요- 밈 백과사전〉

정혜인

*밈(meme)이란?

하나의 완성된 정보(지식,문화)가 마치 살아있는것처럼 말과 문자를 매개체로 세대를 넘어 보존, 전파되는 것을 밈(meme)이라 정의하였다.

출처: 네이버 오픈사전

쉽게 다시 말해,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재밌는 말과 행동들이 유행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대화 중 다양한 밈을 적재적소에 쓰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는 당신!

딸, 아들 / mz세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당신!

위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밈 백과사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타이밍과 감을 익혀보세요!

1. 근데 이제 000을 곁들인

마스터셰프코리아2 프로그램에서 최강록 지원자가 자신이 만든 요리를 소개하면서 했던 멘트에서 유래된 밈이다. 실제 멘트는 '제목은 고추장 닭 날개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질을 곁들인…'이었는데 이 클립이 바이럴되며 많은 사람들이 밈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 문장을 쓴 후 반전이 있거나 강조하고 싶은 사실을 뒷 문장에 적으면 된다.

ex) 이 수박 진짜 맛있다…. 근데 이제 비싼 가격을 곁들인…….

2. 00 그 잡채

'그 자체'의 발음이 '그 잡채'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 그 자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자체'를 '그 잡채'로만 바꿔 말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대화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 너희 집 고양이 정말 귀여움 그 잡채구나.

3. 비상이다

처음 시작은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을 '비상이다'라고 쓴 어떤 글이었다. 평소에는 표현하기 힘든 감동과 따뜻한 감정들을 '비상이다' 한 마디로 간결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표현할 수 있다. 요즘에는 사용 범위가 넓어져 너무 좋거나 벅차오를 때에도 자주 쓰인다.

ex) 나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좋은 하루 보내래…. 비상이다….

4. 가보자고 & 오히려 좋아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만능 밈. '가보자고'는 기본적으로는 '해보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쓰이는 상황이 정말 다양한데 보통은 성공하기 힘든 일을 해내려고 결심했거나 자신감을 얻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이 '가보자고' 밈은 특히 '오히려 좋아' 밈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를 쓰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된다. '오히려 좋아'는 앞에서 언급한 힘든 상황이 아닌 보통의 상황에서 써도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

ex) 이번 프로젝트 지적을 많이 당했네…. 오히려 좋아,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가보자고~!

5. 힘들지 않아 거친 세상 속에 뛰어든 건 나니까 암오케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노래 'MIROH'의 가사를 활용한 밈입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이러한 거친 세상 속에 뛰어든 건 나니까' 괜찮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밈 또한 4번 밈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이기에, 오늘도 힘든 하루를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ex) (상사에게 깨진 후) 힘들지 않아 거친 세상 속에 뛰어든 건 나니까 암오케….

이처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용하게 잘 쓸 수도, 혹은 아직도 이런 걸 왜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밈을 특히 mz세대들이 열광하며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밈이 그 자체로 하나의 '유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그 밈을 쓴다는 것은 이러한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람들은 유행에 편승하고 싶어하죠. 너도 나도 올라타고 있는 이 유행의 물결을 놓친다면 밈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혼자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밈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물론, 대화나 채팅에서 언제나 밈을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밈을 알고, 이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밈을 잘 아는 2030 세대들이나 특히 sns에서는 한 문장에도 여러개의 밈이 쓰입니다. 하지만 sns를 잘 하지 않고 채팅보다는 말로 대화

하는 것이 편한 중장년층에게는 어떨까요? 밈의 뜻을 설명하느라 대화가 뚝뚝 끊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밈의 사용 여부는 개인적인 선호의 차이이기 때문에 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타이밍'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이처럼 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일상어를 사용하여 평범한 대화를 하되, 밈에 오픈마인드인 사람들과는 아이스브레이킹이나 유쾌한 분위기를 위해 종종 쓸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무분별한 밈의 사용은 대화를 방해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밈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적절한 필터링을 통해 건강하고 재밌는 언어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st dAy oN EaRTh
하이데거의 현존재 관점에서 본 영화 〈돈룩업〉 속 아포칼립스 세상

전예원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인간의 생(生)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 이 명제는 지구 상의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필연적이나 불명확하고, 부정할 수 없으나 인정하기 싫은 고정불변의 사실. 죽음을 철학의 담론으로 끌고 들어온 근대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앞당겨 생각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현존재로 온전히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철학은 한 가지 가정에서 출발한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한 달뿐이라고 가정하자. 당신은 계획했던 대로 빨래를 돌리고 먹다 남은 빵과 밀린 업무를 야금야금 해치울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 영화 〈돈룩업〉 (아담 맥케이, 2021) 속 인물들은 혜성 충돌로 멸망할 지구의 운명 앞에서 다양한 선택을 통해 유한함 속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보여준다. 끊임없이 탓하고, 책임지고, 울분을 토하지만 슬픔 사이로 언뜻 비치는 웃음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로 영화의 핵심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음식이다. 귀에 이어폰을 꼽은 여성이 빵에 잼을 바르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민지 교수 아래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케이트는 혜성 충돌로 지구가 박살나기까지 총 6개월 14일의 시간이 남았음을 발견한다. 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최악의) 발견의 순간에도 음식이 등장하는 것처럼, 지구 종말의 완성의 순간에도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하다. 혜성의 진실을 밝히고자 고군분투한 세 인물이 민디 교수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하며 겸허히 종말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성경 속 최후의 만찬 같다. 지표가 흔들리고 벽이 무너지지만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임박한 종말의 비극을 비웃는 것처럼 매우 일상적이다. 음식은 한껏 긴장이 고조된 순간뿐만 아니라, 두 사건을 잇는 느슨한 순간에도 등장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종일 기다리는 권태로운 순간에도 음식이 등장한다. 정치인들의 입막음에 저항한 켈이트가 창고로 쫓겨난 장면에도 간식이 등장한다. 이때 케이트는 비극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들의 향한 분노와 종말의 카운트다운의 초조함 앞에 아이처럼 무너져내린다. 이처럼 음식을 먹는 장면은 인물들의 밀폐된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채로 쏟아지는 구간이다. 음식을 먹는 순간은 꾹 입을 다물고 있던 인물들도 입을 벌리기 마련이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경계선이다. 영화 속 인물들이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를 넘는 일은 관객들에게 도덕적인 선택의 순간이다. 영화 속 사람들에게 편하고, 즐겁고, 심미적 쾌락을 주는 일은 '좋은 것',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은 최대한 빨리 가까이에 두고, 나쁜 것은 서로 미루고 외면하기 바쁘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마을의 펍, 마트의 계산대, TV쇼의 패널석 등, 인물들이 신념에 맞서는 일을 마주할 때마다 영화는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인류의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개인의 신념은 울타리 없는 마당을 지키는 일과 비슷함을 암시한다. 믿음을 지키는 몫이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타인의 영역에 들어선 순간 그 책임의 영향은 마을 전체, 공동체 규모로 이루어진다. 가령, 혜성 충돌의 위험을 전하기 위해 TV쇼에 나간 민디 교수가 앉아있던 패널석으로 여성 MC의 손이 넘어온 순간은 민디의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그의 과학자로의 신념에 금이 가는 파괴적인 관계의 시작이었다. 가볍든 무겁든 선택의 순간

을 앞둔 인간이 경계선 앞에 수도없이 놓이는 것을 통해 화는 지구의 종말까지 카운트다운을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매순간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진실이다. 영화 속 혜성은 가릴 수 없는 진실을 상징한다. 영화는 시작부터 혜성의 존재를 못박고 시작한다. 정계, 학계, 경영계의 사람들은 언론, 미디어 등의 공적 공간에서 각자의 이익을 좇아 대중을 선동한다. 개인들은 SNS 등의 사적 공간에서 또 다른 진실공방을 펼친다.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한 정치적 권위자들이 최후에는 "위를 보지 말라"는 포퓰리즘을 동원해서 혜성의 존재를 부정하러 들어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혜성의 꼬리는 지울 수 없었다. 그와 더불어 영화는 진실을 밝히려는 인물들이 희롱당하고, 빨리 생산되고 사라지는 밈 콘텐츠의 일종으로 소비되는 모습을 통해 21세기 언론과 대중이 내용의 알맹이보다 피상적인 자극에만 집중하는 점을 지적한다. 영화의 끝에 다다르면서 자신이 선택한 진실의 심지가 어디에 있든, 지구의 성층권을 뚫고 제 모습을 드러낸 혜성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도생에 돌입한다. 다수에 속하려는 욕망을 지나, 코앞에 다다른 끝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순간 진실은 드러난다.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 궤도를 지키며 날아온 혜성처럼.

〈돈룩업〉은 기존 SF장르의 문법대로 진실을 밝혀낸 인물이 인류를 구원한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지 않는다. 진실을 본 인들은 서로의 등 뒤로 다가오는 종말의 그림자를 겸허히 목도하고 그 속으로 완전히 파묻혀버린다. 절망감을 부풀리지도, 헛된 희망으로 포장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관객은 철저하게 혜성의 등장과 지구의 종말, 그 이후의 모습까지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목격자에 그친다. 그 괴리에서 관객들은 인물들의 궤도를 따라가며 스스로에게 물을 틈이 생긴다.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현존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귀중한 기회임을 깨닫고 사그라지는 황혼의 아름다움을 감사할 줄 아는 존재이다. 지나가버린 과거의 후회와 미련은 묻고,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과 걱정은 과감히 무시할 줄 아는 주체적인 용기를 지닌 존재이다. 〈돈룩업〉의 인물은 기존의 철학이 얘기하는 군자, 성인, 철인(哲人)과 다르지만, 오롯이 현재에 살아 숨쉬는 '나'에 집중한다. 글의 제목은 "지구에서 삶이 단 하루 남았다면"의 가정으로 시작하는 문장들로 구성된 곡의 제목이다. 파릇파릇한 녹색을 보고, 지저귀는 새를 보고, 껄끄러운 관계의 사람들은 안 볼 거야.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얻은 게 겨우 푸르딩딩한 새벽이라니. 〈돈룩업〉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특정 대상을 꾸짖는 영화가 아니다. 다만 인류의 종말을 목격한 관객에게 묻는다. 6개월 14일 뒤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행자들

유수정

언니가 탄 우주선은 궤도를 이탈해 경계 너머로 사라졌다고 한다. 원인은 고작 경로 설정 오류였다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면 죽음은 차라리 안식에 가깝길 바랐다. 경계 이탈이라니. 자유 거주 시대에 참으로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연일 우주 개척 초기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떠들어댔다. 그렇지만 그건 경계 너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구인에게 오갈 수 있는 행성은 충분히 많고, 모험심을 발휘해 경계 근처에 몸소 나가보지 않아도 계속되는 탐사가 한계를 넓혀주었다. 모든 관심은 평화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은 허무한 죽음과 여행자들의 말로 같은 것들에 집중되었다. 경로가 고정되어 한 번 이탈하면 수정하기도 어려운, 경계를 서성이는 구식 우주선의 탑승객이야 여행자들일 게 뻔했으니까.

이례적인 사고에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그들이 비록 여행자였더라도 대부분 지구 출신이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행자들의 죽음에 관여한 적 없었기에 보상금 지급 소식은 아주 뜻밖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닌 듯했다. 자유 거주 시대 이래로 경계를 나가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설명도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지구인들에게 죽은 여행자들은 도를 넘은 자들이었다. 마음대로 지구를 이탈하는 것으로 모자라 경계 밖으로까지 나가버린. 사람들은 세금이 아깝다며 분노했다. 그러나 보상금이 주민의 유족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했다. 언니처럼 주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여행자들의 죽음은 어차피 위로받지 못하는데 말이다. 방향만이 명확한 분노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다.

처음에는 언니를 기다리려고 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싶었다. 보상금의 존재가 공식적인 사망 선언과 마찬가지였대도 조그만 확률에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우주선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시착했거나 충돌했다면 파편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우주선의 뒤꽁무니가 남기고 간 먼지라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보상금 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추적은 자연스레 중단되었고 이제는 우주선을 찾으려는 시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긴급 편성된 연구비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이었다. 불법 이탈로 신분이 없고 가난하기까지 한 여행자들의 죽음에 오래 관심을 둘 사람은 없었다. 문득 우리가 갈 수 있는 행성이 이렇게나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발전은 결국 내 것이 아니고.

인간이 경계 바깥에서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다.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정하고 나니 홀가분해졌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지구가 싫어서 도망간 사람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한 번도 고향이라 생각한 적 없는 곳에 묻히는 결말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 다른 행성의 장례 방식을 찾아보았다. 한 가지 간과한 것이라면, 인간의 일생은 죽음마저 돈이라는 사실이었다. 장례 비용도 환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결국 반쯤은 지구의 방식을 따르기로 타협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시신 대신 남겨진 소지품을 소각로에 넣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었다. 까만 연기 위로 탁, 탁 튀어대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 생

각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말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더니 언니가 어둠 속에서 가만히 티비를 보고 있었다. 왜 안 자고 있어, 말을 걸려다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몰래 화면을 훔쳐보던 기억이 있다. 티비 속에선 그 당시 유명했던 여행자가 나오고 있었다. 인터뷰어가 그에게 물었다.

- 당신들은 왜 떠나는 건가요?

- 글쎄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지 않았던걸요.

이상한 말이었다. 오래오래 잊을 수 없었던 건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는 언니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였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걸 외로움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은 그때까지도 스크린 하나 없이 벽걸이 티비를 사용할 만큼 가난했는데, 언니는 쉬지 않고 일해서 유일한 가족인 나를 키웠다. 언제나 다정했고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우선이었던 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작 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지만. 남기고 간 편지를 통해 간신히 그 마음을 짐작해 보려 했을 뿐이었다.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정도, 지구인이 모두 아는 상식 선까지였다. 모두에게 충분한 돈과 훌륭한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니니 행성 간 이동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리하여 지구를 이탈하여 주민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증발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 단순히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범죄자, 긴급 도피가 필요한 자, 다른 사회가 필요한 자, 지구에 미련이 없는 자들과 그들의 후손. 자유 거주 시대도 막을 올린 지 오래라 여행자들의 수는 상당했지만 지구 밖의 이야기란 나에겐 너무 멀뿐이었다. 언니가 떠날 줄 몰랐던 것은 그래서였을

까. 나를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야? 따져 묻고 싶었으나 어차피 나에게는 광역 통신기를 살 돈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잔인한 이별이 또 있을까. 그렇지만 언니는 너무 오랫동안 날 위해 희생했으니 봐주기로 했다. 지독하게 외로웠다.

소각로의 불씨가 조그맣게 깜빡거리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지자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타고 남은 재를 조심히 쓸어 담았다. 유골의 무게는 의외로 상당하다던데 언니의 재는 손짓 한 번으로도 날아갈 것 같았다.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그날, 언니는 지구를 떠나면서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평생 떠돌아다니다 궤도 밖으로 나가버렸지. 그렇다면 언니에게 궤도 이탈은 불행일까?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이곳에 남은 약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지구에 있을 이유도 더 이상 없다.

알바생의 수기

서아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알바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려보면 진상썰/이상한 동료들과 사장님/알바팁/알바공감 등등이 대부분이다. 알바는 고된 청년들이 원치 않아도 돈을 벌기 위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야 하는 직장이며, 대학생들의 '현생' 자체이다. 그러나 알바를 현생으로부터의 도피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대타 나와 달라고 부탁 받았을 때 단칼에 거절해야 앞으로 귀찮게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보통의 알바생들에게 공감되는 꿀팁으로 돌아다니지만 오히려 대타를 많이 불러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한편에 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어쩌다 알바를 단순 건조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현실도피처이자 자기 개발을 위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써보고자 한다.

-사회를 배워보고 싶다!

외동으로 자라 같은 동네의 여중여고를 나온 나의 세계는 좁았다. 학교-학원-집이 끝이었고 그 안에서마저 또래들과만 어울렸지 선후배나 어른들과는 접점이 별로 없었고 친하지도 않았다. 주변에는 같은 나이의, 비슷한 성장배경과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밖에 없었다. 스무살이 되고, 나이만 어른이 아닌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던 나는 이 세계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내던져지기 전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졌을 때. 사회에서 서툴러도 이해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기에 최대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쉽고 만만하며 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알바였다. 더하여 알바에 대한 로망이 있기도 했던 나는 바로 알바몬을 다운받았다.

-화려한 식당 알바의 이력

스무살의 봄, 명동의 한 중식당에서 첫 알바를 시작했다. 그곳은 가격대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좌석도, 손님도, 배달주문도, 알바생도 많았다. 분업이 철저했던 그곳에서 배달포장과 음료제조을 주로 맡았던 나는 손님을 응대할 일이 거의 없었다. 또 아주 바빴기 때문에 동료와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 기대했던 알바의 모습과 전혀 달랐던 것이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결국 세 달 만에 바로 다른 알바를 구했다. 광화문의 쌀국수 프렌차이즈였다. 복장규정과 테이블 세팅 하나하나가 까다로웠던 전 알바와 달리 이 곳은 규정도 자유롭고 일도 편했으며 알바생들과 잡담을 나눌 시간도 많았다. 또 드디어 주문받는 법과 계산하는 법, 서빙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었다. 상상했던 알바의 모습 그 자체였고, 완전한 식당 알바생으로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 뿌듯하기까지 했다. 즐겁게 일했지만, 2학년이 돼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곳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잔고가 바닥나버려 결국 다시 알바를 구하게 되었는데 바로 신촌의 멕시코 음식점이었다. 어쩌다 보니 이국음식점 컬렉터가 돼 버렸다. 이 곳은 작은 개인사업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적어 다들 친했고 긍정적인 의미의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프렌차이즈에서 일 할 때는 그릇을 하나 깨먹어도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곳에선 가게의 번영과 리뷰를 함께 신경 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일도 가장 재미있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었다. 이만 줄이자면, 결론적으로 세 군데 다 괜찮은 곳이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진상손님을 상대해 본 적도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텃세 없이 친절해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알바에 진저리를 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일하는 시간은 합법적으로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어쩌면 알바 가는 걸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나는 시험기간에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불안해하기만 하는 타입이다. 수요일의 저녁시간을 집에서 보내든 알바를 하며 보내든 공부를 하지 않는 건 똑같다. 그런데 집에서는 누워서 책상 위 전공 책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끼지만 알바를 하면 학업을 싹 잊은 채로 바쁘게 일만 할 수 있다. 또 일하던 중에 공부 생각이 나도, 집에 누워 죄책감을 느낄 바엔 차라리 돈이나 벌며 시간을 쓰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합리화를 할 수 있다. 공부뿐만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나 다른 '본업'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알바를 통해 눈을 돌릴 수 있다. 학업이나 동아리, 인간관계 등이 바로 내 본업이다. 진정으로 집중하고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일이다. 알바 또한 그 속에서 여러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야 하긴 하지만, 인생에 단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며 그 시간 동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섯시간동안 일을 잘하고 칭찬받으며 효능감을 느끼는 것보다 학교공부를 한시간이라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게임에 빠지는 게 자극과 즉각적인 보상 때문이라고 하지 않나? 알바에서 일을 하면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고 한달단위로 응당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었다는 뿌듯함을 핑계로 정말 중요한 본업으로부터는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시험기간에 대타를 부르면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이다.

-선명해지는 세상

알바를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룬 부분도 많다. 그리고 그 성장 중 가장 큰 하나는, 타인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에는 낯선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 지 알 수 없어 두려웠고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나 알바를 하며 전혀 마주할 일이 없던 사십대의 사장님, 대학 졸업반 언니, 고등학교를 자

퇴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한 언니들과 친해져보니 다들 다양한 환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다 같은, 다 비슷한 사람이란 게 크게 와 닿았다. 어디선가 대화가 통하는 지점은 분명 있었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배려하며 맞춰주면 되는 일이었다.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나도 항상 비슷한 말들을 들으며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직접 경험해가며 깨닫는 건 많이 달랐다.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덕에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전보다 거리낌이 없게 됐다. 또 내가 타인을 이해하는 것처럼 타인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에도 한결 자신감이 생겼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썰을 듣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는 재미가 알바 가기를 좋아하게 된 다른 이유이다.

처음 알바를 시작한 이유였던 '더 넓은 세상'을 만나지 않았나 싶다. 현실도피라는 예상치 못한 기능도 발견했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의 재미와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의 재미도 발견했기에 즐거운 수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여태껏 피해왔던 학교생활을 마주하기 위해 잠시 일을 쉬고 있지만 취업을 하기 전까진 계속해서 알바를 하고 싶다. 혹시 글을 읽는 분들 중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바를 시도해보는 걸 추천한다.

방구석 I열 : MBTI 미니 감상회

권민경 배숙경 조연수

영화 소개

〈디 아워스(The hours)〉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댈러웨이 부인〉을 중심으로 얽힌 세 여성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의 삶을 보여준다. 1923년 버지니아 울프가 이 작품을 구상하는 모습, 1951년 로라가 작품 속 주인공과 유사한 삶을 사는 모습, 2001년 사랑하는 리처드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는 클라리사의 모습을 통해 책을 중심으로 세 여성의 연결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버지니아

의사의 소견을 들은 남편의 의견으로 시골에 와 따분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버지니아. 따분함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설 〈댈러웨이 부인〉을 집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주체성을 찾아간다.

로라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주체성을 잃은 자신의 삶에 권태를 느끼는 인물이다. 남편의 생일 케이크를 만든 후 충동적으로 자살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공허한 집으로 돌아온다.
둘째 아이를 낳은 후 가족(남편, 아들 리처드)을 떠난다.

클라리사

딸 줄리아와 애인 샐리가 있지만, 옛연인이자 서로의 삶의 이유인 리처드와 깊고 복잡한 관계를 이어간다. 몸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리처드를 오랜 시간 돌봐온 클라리사는 그의 문학상 수상축하 파티를 준비하는데, 리처드는 클라리사에게 사랑고백 후 그녀가 보는 앞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린다.

MBTI 소개

ISTJ(민경) #현실주의자 #감정표현서툶 #너무객관적 #변화싫어함 #순차적계획 #기억력좋음

INFJ(숙경) #선의의옹호자 #열정적 #뛰어난공감능력 #몽상가 #늘생각이많음 #섬세함

ISFJ(연수) #용감한수호자 #공감능력 #감정표현부족 #눈칫밥과식 #디테일중시 #원칙주의자

공통 속성인 I-J는 감각과 같은 인식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S-N은 인지유형의 차이로 S는 감각을 통해 현재의 현실을, N은 느낌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본다. T-F는 판단유형의 차이로 T는 사건에 집중해 옳고 그름을, F는 상황에 집중해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1.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는 왜 비슷한 느낌이 드는가?

ISTJ-T (민경) : 버지니아, 로라 그리고 클라리사는 20년대, 5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사는 즉, 다른 시대를 사는 인물이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삶의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3명 모두 타인과 외부 요인들로 인해 자신만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버지니아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의사의 소견과 리치몬드로의 이사가, 로라에게는 1920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이, 그리고 클라리사는 리처드라는 인물이 세 여성의 주체권을 방해한다. 남에 의해, 외부에서 정한 틀에 의해,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에 '자기중심'을 잃은 세 여성이 다른 시대에 있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NFJ-T (숙경) : 세 인물 모두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고 느꼈다. 버지니아의 경우 남편과 의사들의 행동이 보호가 아닌 감시처럼 느껴지고 도시로 다시 가고 싶어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로라의 경우 남편 친구의 아내인 키티가 아프다는 소식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이상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하며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되며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클라리사도 사랑하는 옛연인 리처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세 인물 모두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직시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스러움이 나타난다는 점이 유사하다.

ISFJ-T (연수) : 세 인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다른 사람(남성) 때문에 자신이 없는,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삶과의 간극에서 절망감을 느낀다. 영화의 마지막엔 세 인물 모두 각자의 '하루'에서 벗어나게 된다. 세세한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탈일상'은 공통적으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에게 죽음은 삶에 대한 이해이기도 했다. 버지니아 울프는 "삶을 똑바로 마주했기에" 접을 수 있었고, 로라 브라운은 "죽음 속에서 삶을 택했다"고 고백한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삶을 함께 겪고 있는 여성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한다는 점 또한 공통적인 부분이다.

2. 각 인물에게 〈댈러웨이 부인〉 책의 의미는 무엇일까?

ISTJ-T (민경) : '자기중심', '자신만의 공간'을 버지니아는 〈댈러웨이 부인〉의 집필을 통해 만들어갔다. 모든 것이 남편의 허락하에 살아가던 버지니아에게 책을 집필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자신만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이다. 로라에게 있어

〈댈러웨이 부인〉은 자신의 삶이 투영된 책이다. 책 속 '클로리사'라는 인물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았기에 로라는 클로리사에게 동질감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낀 것이다. 클라리사에게 〈댈러웨이 부인〉은 리처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책이다. 소설 속 주인공과 리처드의 어머니인 로사가 했던 것처럼 행동하면 리처드 삶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리처드의 의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정리하면 버지니아에게는 자신만의 시간이, 로사에게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깨닫고 벗어나도록 그리고 클라리사에게는 리처드와 그의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면서도 리처드의 삶의 의지를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INFJ-T (숙경) : 버지니아에게 이 책은 삶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느꼈다. 이 작품을 집필하듯이 몰두하여 글을 쓰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로라는 이 책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 작품 속에 자신과 유사한 인물과 그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는 로라가 삶의 결단을 내리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클라리사에게 이 책은 리처드와의 추억 그 자체일 것 같다. 리처드가 그녀를 '댈러웨이 부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렀기에 그녀에게 이 책은 리처드를 생각나게 하는 일종의 상징이 아닐까 싶다,

ISFJ-T (연수) : 버지니아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금세 〈댈러웨이 부인〉 작업을 이어나간 것은 자신의 이상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로라는 그런 댈러웨이 부인에 감명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이상향처럼 여겼던 인물이다. 일부 장면에서는 잠깐 맞닿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때의 장면은 마치 버지니아가 로라의 삶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클라리사는 '댈러웨이 부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유사한 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클라리사는 클라리사로 댈러웨이 부인과는 다르며 삶 역시 〈댈러웨이 부인〉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 즉 로라와 클라리사 모두 댈러웨이 부인처럼, 또 다르게 묘사된다. 그 이유는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아래 두 가지 영화 장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1) 클라리사가 파티에 리처드의 전애인들을 초대한 것

2) 리처드가 클라리사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출간한 것

ISTJ-T (민경)

1) 만약 내가 클라리사였다면, 초대하지 않았을 것 같다. 아무리 이미 사이가 끝났다고 하지만, 파티에서 리처드와 그의 전 애인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클라리사가 리처드의 전 애인들을 초대한 것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놀라웠다. 리처드의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파티이지만 나로서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 때문이다.

2) 나와의 관계를 책으로 쓸 만큼 나와 보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낄 것 같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내가 고마웠거나 기뻤거나 뿌듯한 일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 영화 속 리처드가 클라리사와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으며 허투루 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INFJ-T (숙경)

1)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좋은 추억을 공유한 사이로 볼 수 있다면 반갑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클라리사가 리처드의 동의를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로의 의사 확인과 더불어 전 애인들과도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합의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 리처드 입장에서는 클라리사와 보낸 시간이 자신의 삶의 일부일 것이다. 그러나 둘이 함께 만든 추억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기에 그 추억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것은 소통을 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 부분인 것 같다. 더욱이 둘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를 것 없이 담긴다면 아무리 문학작품이라 할지라도 집필 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ISFJ-T (연수)

1) 우선 리처드의 전애인들을 꿰고 있는 것부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보다 내가 앞이든, 뒤든 간에 그들에 대한 것들을 평생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초대장을 보내고, 파티를 준비하고, 즐거워야 할 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여담이지만, 나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먼저 권하는 일 또한 없다.) 다만 클라리사가 마냥 '쿨'해서 리처드의 전애인들을 부른 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리처드에게 중요한 날이었기에 그가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다소 불편한 감정이 있더라도 그들을 초대했을 것이다. 클라리사가 리처드만을 위하는 인물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 수단으로 쓰인 듯한 기분이 가장 크다. 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창작 요소로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책으로 출간했다는 사실이 무례하게 다가온다. 거기다 리처드가 '구체적으로' 서술한 덕에 주변인 모두가 리처드 소설 속 인물이 클라리사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가 출간한 것은 소설이 아닌 일기 내지는 자서전인 것일까? 배려와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애인이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총평

〈개인 총평〉

ISTJ-T (민경) : 영화를 보며 나는 과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나에게서 주는 영향에서, 특히 몸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회가 요구하는 몸에 대한 인식은 나와 상관없는 것임을 알지만,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 영화 속에서 버지니아는 책 집필과 자살로, 로사는 가족과 가정을 떠나는 것으로, 클라리사에게는 리처드의 죽음으로 주체적인 삶에 대해 살아가게 된 것처럼 나에게도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INFJ-T (숙경) : 세 인물 사이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추리해나갈 수 있는 영화의 전개 구성이 흥미로웠고 덕분에 몰입해서 볼 수 있었다. 영화를 통해 가족, 연인, 친구 등 삶에서의 다양한 '관계'와 그것이 삶에 미치는 큰 영향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ISFJ-T (연수) : 하루라는 작품 내 시간을 통해 세 인물의 성향,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세 인물의 삶을 온전히 느끼고 이해하기엔 충분했다.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여성들의 삶을 일과의 나열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 작품이었다.

〈MBTI 관점 총평〉

세 명 모두 감상이나 의견을 말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 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반면에 이분법적 표현의 사용, 분석의 객관성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당일치기 서울 여행 에세이

인사동에서 전통 먹거리 체험하기

이유민, 권나현, 김정림, 고보경

*여행 코스:

1, 전통 찻집 〈지대방〉

:각각 네 종류의 차(오미자 수단, 증작, 국화차, 매실차)를 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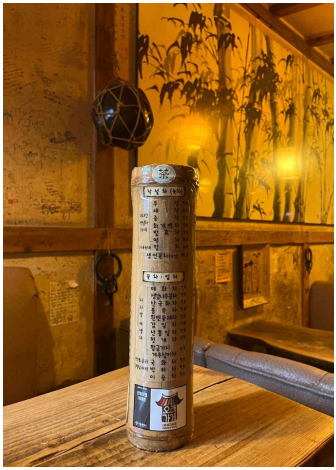
2. 전통 한식당 〈좋은 씨앗〉

:이른 저녁으로 제육 쌈밥과 불고기 쌈밥을 먹음.

3. 전통 찻집 〈인사동 찻집〉

:옛날 팥빙수와 가래떡, 약과 세트, 미숫가루를 먹음.

〈지대방〉



(이유민) 〈지대방〉, 몸과 마음에 안정을 준 정감 넘치는 전통 찻집

우리는 인사동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전통'의 대명사라 부를 만한 곳을 찾아 꼼꼼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많은 찻집을 지나쳤지만 건물 앞쪽에 걸린 간판과 메뉴판을 보고 매우 전통스럽다는 느낌에 발을 내딛은 곳이 〈지대방〉이었다. 기대했던 만큼 〈지대방〉은 물리적인 공간과 차, 내적인 정서와 분위기 전부 우리가 바라던 온전한 한국식 찻집이었다. 나는 서구식 카페에서 커피나 스무디 등의 음료수를 마시는 것만 익숙했기에 다소 새로웠지만,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며 정감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왔다.

주문을 하기 위해 처음 마주한 물건은 원통의 대나무로 된 메뉴판이었다. 처음 보는 형태라 신기해서 계속 돌려보고 사진을 찍

었다. 메뉴는 녹차와 같이 원래 알던 것들뿐 아니라 생소한 이름의 차도 많이 보였다. 맛있으면서도 전통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차를 맛보기 위해 잘 모르는 메뉴는 찻집 사장님께 다 여쭤보며 신중하게 마실 차를 골랐다.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차에 대해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어 좋았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차의 종류는 많고 다양했다. 우리 넷은 의논 끝에 모두 다른 차를 고르고 조금씩 서로 마셔보며 갖가지 차의 맛을 감상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지, 네 개의 차는 모두 맛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만족스러웠다. 내가 마신 오미자 수단과 보경이의 매실차는 정말 달달했다. 나현이의 녹차와 정림이의 국화차는 흔히 차 하면 떠올리는 쌉싸름한 맛이었으나 첫맛과 끝맛이 미묘하게 다르고 단향도 섞여 있어 맛있었다. 귀엽고 앙증맞은 잔에 조르르 따라서 들숨에 훅 마시는 재미도 있었다.

무엇보다 사장님께서 녹차와 국화차를 우려내서 마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시범을 보이며 알려주셨던 것이 인상깊었다. 나는 한국인인데 한국의 전통 다도에 생각보다 무지했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반성하는 기회였다. 고요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따뜻한 물로 그릇을 데우고, 조그마한 주전자에 잎을 담아 우려내어 조심히 따라 마시는 일련의 과정이 왠지 모르게 잡생각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기분이었다. 우울하거나 감정이 불안정할 때 다도를 하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문득 다도 배우기에 호기심이 생겼다.

한편 이렇게 차와 다과에 흠뻑 몰두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차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자주 찾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충분히 맛있고 마시는 묘미가 있으며 건강에도 좋은 우리 차가 서구화된 음료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보전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당류와 카페인으로 점철된 카페 음료 말고도 종종 맑고 깨끗한 차를 마시며 나의 몸과 정신을 정화하는 시간도 가져야겠다.

(권나현) 쉼의 영역을 넓혀준 전통 찻집 〈지대방〉

추적추적 습한 여름비가 내리는 하루였다. 서울의 전통을 체험하기로 한 우리는 이미 점심을 먹은 터라 후식을 먹을 곳을 위해 눅눅한 빗방울을 맞으며 인사동 골목을 헤맸다. 외관이 삐까번쩍한 찻집, 사진 촬영을 부르는 아기자기한 찻집, 사람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지는 못하지만 꿋꿋하게 존재하고 있는 찻집들이 있었다. 이왕 전통을 위해 인사동을 찾은 김에 우리는 외관에 현혹되지 않고 연륜이 느껴지는 찻집 "지대방"으로 향했다.

"와… 뭐야? 이게 바로 전통이지! "

우리는 모두 지대방을 들어서면서 전통이라고 외쳤다. 지대방의 내부는 꽤나 나이를 먹은 듯했다. 나무 탁자와 의자가 풍기는 불쾌하지 않은 퀘퀘함(다시 말해, 연륜의 냄새)은 코를 기분 좋게 자극했다. 적어도 12테이블이 넘어보이는 공간을 이곳저곳 둘러보다 보니, 모퉁이에 좌식으로 차를 즐길 수 있는 전통스러운 인테리어의 온돌방도 발견할 수 있었다. 종합적인 인상을 요약 하자면, 지대방은 허름한 외관과 달리 우리나라의 근사한 멋이 느껴짐과 동시에 찻방의 담담한 향기가 참된 찻집이었다. 역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항상 오류를 일으키는 듯하다. 아무쪼록 우리는 널찍한 곳에 자리를 잡은 뒤, 메뉴판을 기다렸다. 나는 메뉴판을 보고 또한번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대나무 원통에 메뉴들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오…사장님, 메뉴판이 대나무네요?"

"네 종이가 없던 과거에는 이렇게 대나무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모티브하여 메뉴판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이곳은 메뉴판마저도 과거로 향해있었다. 현대적인 곳에서만 머물던 나의 시간들이 잠시 휴식을 갖는 기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대방에서의 시간은 잔잔하고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대방을 나오면서 3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아챘을 땐, 이곳에서의 시간이 결코 느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차를 마실 때는 차가 가진 그윽하고 뜨끈한 공기가 목구멍을 지나가는 순간들이 하나하나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마신 차는 '중작'이라는 차였다. 이 역시 지대방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차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가 잘 되는 차를 하나 추천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녹차가 수확이 잘됩니다. 우전, 세작, 중작, 대작이 있는데 처음이시고 하니 대중적인 중작을 추천드릴게요."

사장님의 말씀대로 중작은 5월 중순에 채엽되는 차로 녹차의 맛과 향, 색을 합리적으로 즐기기에 좋은 차였다. 또, 처음으로 찻집에 온 만큼 찻잔을 덥히는 방법부터 마시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사장님께서 알려주시는 차의 세계는 또 한번 지대방이란 공간에 매료되도록 만들었다. 쌉싸름한 차를 한모금씩 들이키며 지대방의 공기에 호흡을 맞추던 세 시간은 편안해지기 충분했다. 유민언니와 보경이가 주문한 차도 훌륭했고, 정림이가 시킨 국화차도 마음과 몸에 여유를 주는 차였다. 덕분에 든든하게 오랜시간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지대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개가 늦은 듯한데, 지대방은 마음을 비우고 묵언하며 정신을 집중하는 창선 수행처인 절의 옆에 있는 방으로 수행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와서 피곤함도 풀고 차도 마실 수 있으며 법담도 나눌 수 있는 곳이라 한다. 즉, 스님들의 휴

게 공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지대방을 떠올리면 느껴지는 몸의 감각은 노곤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이번 전통여행 덕분에 나의 휴식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를 보러 오는 친구들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공간으로 함께 휴식하러 다음에도 방문해야겠다.

(김정림) 삶의 속도를 늦춰주는 곳, 〈지대방〉

입구에 궁서체 글씨로 차 메뉴만 적혀있던 〈지대방〉은 맞은편에 있던 크고 예쁜 카페와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밖에서 보이는 희미한 불빛으로 간신히 가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곳.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지대방〉에 들어서자마자 한방 냄새가 났다. 차와 약초들이 있어서 그런가. 어릴 때 엄마와 같이 갔던 한의원 냄새가 났다. 옛 느낌의 가구와 노란 전등들은 요즘에 만들어지는 카페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왠지 모르게 편안했다. 우리는 각자 전통 차를 시켰고 곧 가게주인 아저씨가 차와 한과를 가지고 오셨다. “차는 들숨과 함께 천천히 마셔야 해요.” 소주를 마시는 것처럼 차를 단숨에 꺽어 마시는 나를 보며 가게주인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들숨과 함께 마시면 차 향을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답니다.” 가게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다. 차의 단맛이 더 길게 느껴졌고 심신도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내가 차뿐만 아니라 숨도 얕게만 들이마셔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열번, 스무번 넘게 물을 따라도 계속해서 우려져 나오는 꽃잎을 찬찬히 바라봤다. 물을 따르기 전 한껏 움크린 채로 말라있던 꽃들은 물을 먹고 둥그렇게 꽃봉오리를 핀 모습이였다. 모든 것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지대방에서 우리들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보경) 먹거리 이외의 많은 전통을 즐길 수 있었던 〈지대방〉

나는 처음 찻집에 들어갔을 때 한방 냄새에 매우 거부감이 있었다. 어릴 적 아팠을 때 한의원에 자주 가서 지어 먹은 한약이 생각나 좋게 와닿지 않았다. 적응하기 어려운 한방 냄새를 맡으며 자리에 앉는데 사장님께서 주신 대나무 통 메뉴판이 매우 신기했다. 처음에는 그냥 이 가게의 컨셉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대나무 같은 나무에 기록했을 거에요"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메뉴판을 다시 보니 정말 동그란 대나무에 메뉴가 써있어 돌려보는 재미가 있었고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옛날에 동굴벽화가 있었던 것처럼 벽에 기록하는 문화가 있었고 한지가 생긴 이후에는 종이에 기록을 했다면 그 사이에는 나무나 나뭇잎에 기록을 했을까? 하는 기록문화에 궁금증이 생겼고 이후에 이를 찾아보았지만 쉽게 알 수 없어 아쉬웠다. 그래도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메뉴판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이후 음료를 주문하려는데 사장님께서 "우리나라 차를 우리나라 사람이 마실 줄 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다. 나는 사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대부분의 찻집에서 차를 내려주니까 마시는 법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내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차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집중하며 우리나라 차를 마시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좋았다. 가게를 나올 때는 거부감이 들었던 한방 냄새가 우리의 몸을 건강히 지켜주는 한방 향기로 느껴질 만큼 의미 있었던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씨앗〉

(이유민) 메뉴 선택의 폭을 넓혀준 한식당의 꽃 〈좋은 씨앗〉

〈지대방〉에서 나와 쌈지길을 열심히 구경한 후, 우리는 인사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식집들 속에서 어디를 택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결국 한식 중의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쌈밥 전문점 〈좋은 씨앗〉을 찾아 갔다. 나는 원래 고기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편인데, 양념에 함유된 높은 나트륨 함량이 고기에 손이 가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은 적당한 간과 우리 향신료로 과하게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맛있는 고기의 표본을 잘 살린 것 같았다. 콩나물, 미역줄기, 어묵볶음 등의 밑반찬도 담백하면서도 짭쪼름하여 감칠맛이 났다.

나는 고기만큼 채소도 함께 잘 먹는다고 자부한다. 나처럼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대 사회는 음식 또한 서구화되어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식품을 찾는 문화가 더 우세한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고기도 쌈채소 없이 그냥 밥과만 먹기도 하는데 상

추와 깻잎을 곁들이면 맛도 더 다채로워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서 쌈밥이라는 한식 메뉴는 그 건강함에 비해선 사람들이 즐겨 찾지는 않는 식문화가 안타깝다. 보통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한식은 순위에서 밀려나고 양식이나 일식, 또는 중식을 먼저 생각하곤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맛있는 음식이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유명한 것은 외국의 음식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나름의 레시피로 개량해 내는 것에 특출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전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에 반해서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우리는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을 보여주는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식문화를 포함하여 문화적으로 글로벌한 한국도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의 전통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보충하고 보전해나갈 필요성이 크지 않을까? 한국인은 '밥심'인 만큼 가끔은 한식도 선택해보자.

(권나현) 자취생에게 귀한 식사, 전통 한식집 〈좋은 씨앗〉

전통 코스의 두 번째 장소는 한식집이었다.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주로 중년의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계셨다. 우리가 가장 젊은 손님들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한식집을 찾기보다는 양식, 일식을 위주로 먹는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갔던 한식집에서 우리 또래의 손님은 찾기 힘들었다. 아무쪼록 우리는 불고기와 제육볶음을 시켰다. 기름진 고기의 윤기가 침샘을 자극했다. 자취 후 거의 밀가루 음식(면과 빵)만 먹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고기 앞에 있으니 식욕이 넘쳐났다. 또 얼마만의 든든한 식사였는지, 한식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는지 새삼 깊이 깨닫게 되는 식사였다. 내 앞에 앉은 유민언니와 보경이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언니와 보경이를 보고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왜 친구들이랑 만나면 주로 양식집을 가지? 한식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집밥이 주로 한식이어서, 간만의 외출 땐 집에서 자주 해 먹을 수 없는 양식 등을 고르는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자취생인 나에겐 한식도 귀한 식사다. (자취생들은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 기대해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속이 생기면 한식도 굳세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내 음식 스펙트럼을 확장시켜준 전통 한식 맛집 좋은씨앗 ! 인사동에 오게 된다면 또한번 들려봐야겠다.

(김정림) 한옥의 아쉬움이 남았던 곳, 〈좋은 씨앗〉

전통찻집을 나오고 하루종일 움직였던 탓에 배고팠던 우리들은 저녁대감을 한껏 품고 들어갔지만 내부는 여느 다른 식당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내부모습도 전통 한옥집 내부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과 관광객, 4,50대의 아주머니들이 많았다. 그들은 전통을 느끼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인사동을 찾았을 것이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전통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보경)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보통 맛집을 가자고 하면 어떤 음식을 떠올릴까? 아마 대부분 사람은 한식보다 양식, 일식 등을 떠올릴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한식은 주식이라서 굳이 맛집으로 한식을 먹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식 없이 살 수 있냐는 질문

에 쉽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한국인은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밥에는 든든함이 있기 때문이다. 괜히 '밥심(밥을 먹고나서 생긴 힘)'이란 단어가 생겼을까? 이번에 한식을 먹으면서 한식은 우리가 평소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 한식의 소중함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사동 찻집〉

(이유민) 〈인사동 찻집〉에서 우리나라의 디저트 문화를 되돌아보다

우리 아빠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유난히 팥빙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찾으신다. 나는 제일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옛날 팥빙수만을 고수하는 아빠가 구시대적인 입맛이라 생각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전통 간식인 팥빙수를 변형하여 만든 여러 가지 빙수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이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빙수 메뉴를 출시한다. 그

리고 설빙은 대표적인 다양한 빙수를 선보이는 코리안 디저트 카페 브랜드로 메론, 샤인머스캣, 딸기, 민트초코, 브라우니 등 다채로운 토핑의 빙수들로 인기를 끈다. 한국식 디저트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취지를 가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브랜드 설빙이 주도하는 퓨전 빙수들의 활발한 소비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옛날 팥빙수에 있어서는 관심을 잃어가는데, 나 자신부터 아빠의 팥빙수 고수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원조의 디저트에 대한 불호가 무의식적으로 자리했음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세태가 안타깝게 다가왔다. 〈인사동 찻집〉에서 오랜만에 팥빙수를 먹어보며 생각이 바뀌기도 했다. 설빙의 여러 과일 빙수들이 참 좋지만 옛날의 맛을 회상하게 해주는 원조 팥빙수도 나름의 매력이 느껴졌다. 팥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하며 피부와 피로감 개선에도 좋다고 한다. 다음부터는 브라우니 빙수 대신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팥빙수에 먼저 눈길을 보내볼 것 같다.

가래떡구이와 약과, 미숫가루도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디저트로서 함께 맛보았는데 참 맛있었다. 나는 이러한 간식들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사실 할머니댁에 갔을 때 할머니께서 챙겨주시는 날 외에 평소에는 조각 케이크나 타르트, 빵 등의 디저트를 훨씬 더 자주 먹게 된다. 가래떡을 꿀에 찍어 먹으면 담백한 떡 특유의 쫀득함, 고소함과 달콤함이 함께 어우러져 그 식감과 맛에 기분이 좋아진다. 앞으로는 탄수화물이 끌릴 때 빵 대신에 떡을 택해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약과와 미숫가루도 나는 참 좋아하지만 맛이 없다는 선입견에 거부감을 갖는 현대인들이 많다. 이처럼 서구화된 우리 세대의 입맛이지만 전통 음식도 종종 시도해봄으로써 한국인의 입맛을 이어나가는 것도 애국심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이번 인사동 먹거리 탐방은 전통 음식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나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 보전에 힘씀

으로써 우리나라를 '글로컬라이제이션'의 표본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권나현) 전통을 상업적으로만 취급한 아쉬웠던 〈인사동 찻집〉

저녁도 먹었겠다, 우리는 세번째로 전통 디저트를 먹으러 자리를 옮겼다. 전통 디저트가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팥빙수를 떠올렸다. 그래서 팥빙수를 먹으러 '인사동 찻집'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다보니 팥빙수 말고도 미숫가루, 가래떡과 약과 세트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음식점 내부를 흘깃흘깃 살펴보았다. 전통 찻집이라 그런지 한옥 내부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 갔던 '지대방'보다는 확실히 현대적인 느낌이 강했다. 사람도 많고 직원도 많았다. 전통 찻집이라지만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듯했다. 또 아쉬웠던 것은, 주문 정책이었다. 실은 위에서 '어쩌다 미숫가루, 가래떡과 약과 세트도 주문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문 정책 때문이었다. 적어도 오천원~육천원 이상의 가격으로 1인 1메뉴를 주문해야 하는 느낌의 주문 정책이었다. 자고로, 전통이라면 '인심', '정(情)'도 가게 내부에 맴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동 찻집'은 돈이 우선시 되는 듯한 그런… 팍팍한 느낌이 들었다. 철저히 인사동과 전통이라는 키워드를 마케팅하여 차를 판매하고 있는 듯한 가게였다. 음식은 전통적일지 몰라도, 분위기는 가장 현대적이었던 곳이었다. 우리가 기획한 전통 먹거리 코스에 살짝 아쉬움을 남긴 장소였던 것 같다.

(김정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던 하루

디저트로 빙수를 먹고 싶었던 우리들은 옛날 빙수를 파는 곳을

찾았고 인사동에서 옛날빙수를 파는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리는 〈인사동 찻집〉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이곳은 내부도 전통 느낌이 가득했다. 나무로 된 낮은 식탁과 방석, 그리고 창호지로 된 가림막들이 곳곳에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메뉴 선택에 있었다. 우리는 2인분 빙수와 약과와 떡 세트를 시켰지만 약과, 떡 세트는 단품이라 메뉴를 두개 더 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몇 없는 메뉴 중에 단품을 빼니 시킬 수 있는 메뉴들이 몇 개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안된다는 말을 세,네번 더 듣고서야 간신히 메뉴를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는 주문이 안되세요”라는 말을 네번 정도 들은 손님 중에 기분 좋게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주문이 까다로워서 많은 인원이 같이 가기에는 불편함이 많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간판이 있는지도 몰랐던 첫번째 찻집, 외관만 전통 느낌이었던 두 번째 한식집, 메뉴 주문에 불편함이 많았던 세번째 디저트집. 전통이 잘 느껴지면 불편한 점들이 존재했고 편리하면 전통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인사동을 돌면서 전통과 편리함이 융합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끔씩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통을 느끼기 위해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든 하루였다.

(고보경) 오늘날 변해버린 여름 전통 디저트의 아쉬움

한여름 날이 너무 덥고 장마철이라 습하고 우리의 몸은 무기력해진다. 이런 계절에 사람들은 다들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음식을 찾기 마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원한 음식을 먹고 싶어 빙수집을 찾았다. 사람들은 ‘빙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날까? 초코 빙수? 딸기 빙수? 하지만 이렇게 오늘날 생각나는 대부분의 빙수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퓨전 빙수일 것이

다. 옛날에 먹었던 빙수는 알록달록한 젤리, 여러 종류의 통조림 과일, 연유, 조그마한 인절미 떡, 팥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런 모습의 빙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옛날 빙수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먹었던 옛날 팥빙수는 어릴 적 과거를 여행하게 해주는 타임머신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요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바닐라 라떼 등과 같이 커피나 과일 음료를 마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시원한 미숫가루를 마시면서 과거에 세숫대야에 얼음을 띄워 달달하게 해 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그리워졌다.

공원 괴담

김별, 배숙경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공원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밤이 되면 더욱 인적이 드물었다. 귀신이 출몰한다, 괴생명체가 있다 등 께름칙한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 마침내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 가기로 마음을 먹은 날 비가 세차게 내렸다. 평소 별로 무서워하는 것이 없는 그녀였지만 막상 공원에 가려고 하니 조금 망설여졌다.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는 공원의 모습은 소문 때문인지는 몰라도 짙은 어둠을 뿜어내는 듯 보였다. 그 모습을 떠올리니 괜한 짓을 하나 싶었으나 그녀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가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고 마침내 공원에 다다랐다.

비가 와서인지 공원의 입구는 평상시보다 훨씬 어두웠다. 핸드폰 플래시를 길잡이 삼아 좁은 출입구를 통과해 걸어 들어가니 제법 그럴듯한 공원의 모습이 드러났다. 한 손엔 우산을, 한 손엔 핸드폰을 꼭 쥔 채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디디며 그녀는 공원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페인트칠이 모두 벗겨져 검은 속살을 드러낸 벤치, 운동기구, 조형물들은 너무 낡아 손을 대면 바스러질 것만 같았다. 나무나 풀 따위가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란 모습이 섬뜩한 분위기를 조성하긴 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공원이었다.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공원 끝에 있는 정자에 우산을 접고 들어가 앉았다. 빗소리를 들으며 축축하게 젖은 공원을 보고 있자니 그 모습은 으스스하긴커녕 허름해 보일 뿐이었다. 긴장이 풀린 그녀는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정자 기둥에 몸을 기댔다.

툭 -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예기치 못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가벼운 몸놀림으로 나무에서 내려온 그 아이는 태연하게 말을 걸었다. 발등을 적실 만큼 떨어지는 비에도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손에는 우산조차 없다. 빗방울이 그대로 몸을 통과하는 듯하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무언가 묻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뭐를?"

그녀는 우산을 애매하게 든 채로 반문했다. 사실은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너는 누구인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어젯밤 꿈에서도 그 말을 하려던 거냐고. 어제 뿐만이 아니다. 지난주부터 똑같은 꿈이 이어졌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장소, 꿈에서 거닐던 그 장소의 정체가 별별 괴담에 싸인 동네 공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더라. 꿈 속의 자신은 항상 무언가 찾고 있었다. 무얼 잃어버린 지도 모른 채 무작정 공원을 뛰어다녔다. 꿈 속 상황에 의구심이 들 즈음에는 늘 어떤 아이와 눈이 마주친다. 아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신이 왈칵 밀려온다. 꿈은 늘 그렇게 끝난다.

생각해보면 꿈이란 원래 논리도 규칙도 없는 법이다. 하지만 같은 꿈을 일주일째 꾸다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아무래도 답답하고 마음에 걸려 참을 수 없었다.

"말 그대로 묻고 싶은 거요. 말못할 부끄러운 기억이나, 떠올리기 싫은 과거. 버리고 싶은 습관도 좋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묻는 무덤이에요."

그녀는 멈칫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묻어 버리고 싶은 쪽

이었나? 꿈을 떠올려본다. 자신은 묻고 싶은 게 있어 온 것이 아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반대야. 나는 뭘 좀 파내고 싶어서 왔어."

“그게 뭔데요?”

그녀가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자 아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고 마침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언젠가부터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건 마치 삶의 일부분이 아예 삭제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아도 누구도 그녀의 의문을 풀어주지 못했다. 어떻게 아무 흔적도 없이 지나가버리는 시간이 있겠냐는 그녀의 물음에 “글쎄, 사람이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순 없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는 무심한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누군가 흔적도 없이 깊숙이 묻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의 조각을 그녀는 도로 파내어 찾고 싶었다. 한동안 열성적으로 그 시간의 흔적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그녀는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에 휩쓸렸고 그 열정적이던 마음도 점차 힘을 잃어갔다. 아이에게 답을 하며 그녀는 다시 그때의 마음을 되새겼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말하려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문득 그녀를 보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무척 익숙하게 느껴졌다. 꿈이 아닌 어딘가에서도 마주한 얼굴 같았다. ‘어디서 봤더라’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머릿속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듯했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머리를 조여왔다.

“너… 날 알고 있니?”

아이가 고개를 젓는다. "무덤은 묻고 추모하는 공간이지, 이미 묻어버린 것을 파낼 수는 없어요. 그건 규칙에 어긋나니까요."

"널 어디선가 봤어. 분명히 알고 있어."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밀어붙였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매몰차게 그 침묵을 채운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묘한 감정이 퍼진다.

"저는 무덤의 파수꾼, 당신과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제 영혼은 오래 전에 죽었으니 저를 안다면 그건 전생의 저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럼 내가 기억을 파내는 걸 도와줘. 네가 전생에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기회잖아."

"……."

"알고 싶지 않아?"

말하면 말할수록 강렬한 욕구가 느껴졌다. 일상에 닳아버린 줄로만 알았던 욕구. 기억을 떠올리고 싶다. 과거를 기억하고 싶다. 존재의 틈새를 메우고 싶다. 그녀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 위로 우산을 살짝 기울였다. 아이에게 빗물 따위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지만, 그녀는 배려 깊은 행동인 듯 웃어 보였다.

"부탁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무덤을 파낼 수 있는 건 주인 뿐이에요."

금방이라도 후회할 것 같은 표정으로 아이는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기억을 떠올리고 싶다는 욕구에 집중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이 끌릴 것이다. 걸음이 멈추는 곳에서 손뼉을 세 번. 그대로 바닥에 손을 붙이고 기다린다. 시간이 흐르면 흙먼지 같은 덩어리가 땅에서 솟는다. 그 덩어리를 살살 파내면 이전에 묻은 기억에 접근할 수 있다. 그녀는 더이상 겁이 나지 않았다. 마음 속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했다. 의심도 없이 아이가 알려준 대로 정신을 모으고, 걷고, 손뼉을 치고, 무덤을 찾았다. 쿵. 쿵. 심장이 머리를 울린다. 멀미가 날 것만 같다. 그녀는 조심스레 무덤을 팠다. 어둠을

뚫고 새하얀 빛이 그녀를 향해 돌진한다.

그녀는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녀보다 작은 아이가 쫄래쫄래 뒤를 따른다. 두 사람은 나이는 달라도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였다. 단 한 사람을 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가 귀찮았다. 또래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아이가 끼면 분위기가 서먹해진다. 평소에는 친구처럼 놀다가도 불리할 때면 동생에게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싫었다. 그래서 아이가 실종되고 학교에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겁이 나긴 했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와 만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집에 찾아왔을지도 모르지만 낮잠을 자느라 몰랐다는 말만 끊임없이 증언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아이의 시체가 발견됐다. 그녀는 자신이 모른 체 했던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시간을 흘려 보내도 떼어낼 수 없었다. 기억 속의 아이의 눈은 각각 원망과 실망이 섞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대로는 그 눈물에 익사할 것만 같았다.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녀는 아이가 발견된 공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묻어버렸다. 도움을 무시했다는 죄책감과, 귀찮은 존재가 사라졌다는 해방감까지 전부.

"어때요? 정말로 전생의 저와 아는 사이였나요? 제가 누구인지 답해줄 수 있나요?"

그녀의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낯선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후들후들 떨린다. 기억을 확인하느라 비를 맞은 탓이다. 밤중에 쏟아지는 비를 맞았으니 떨리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내 착각이었어. 이 기억 다시 묻을 수 있지?"

그렇게 그녀는 공원을 떠났다. 이번에는 공원에 찾아왔던 오늘의

기억까지도 묻고. 그동안 왜 기억이 드문드문 빠져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이 공원을 찾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느껴졌다. 그 위화감까지도 전부 묻었다. 이제 정말로 이곳을 다시 찾을 일은 없을 테다.

시간은 무심하게 흐른다. 낮과 밤이 반복된다. 일상이 단조로워질 즘에 그녀는 어떤 꿈을 꿨다. 그 꿈은 일상을 쿡쿡 헤집고 마음 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공원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밤이 되면 더욱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는 오늘 마침내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작가의 말〉

김별: 처음 논의했을 때, '사라진 무언가를 찾는 주인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상실을 주제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고 나니 으슥한 공원이라는 배경에서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과거의 흔적을 찾지만 결국 이를 외면하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차례가 오기 전까지 다음 전개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 릴레이 소설의 묘미라고 봅니다. 그녀는 기억을 묻고도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공원에 찾아 갑니다. 아마 이전에도 수없이 그랬을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로부터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해석의 관점을 전부 열어두고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숙경: 작년부터 하고 싶던 릴레이 소설 쓰기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처음 논의에서 나왔던 '일상 미스터리', '판타지적 요소', '사라진 중요한 무언가'를 키워드로 고민하며 글을 썼는데 역시 기대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방

향으로 글이 흘러가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기억'은 인간을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기억은 곧 지나온 삶의 흔적이고, 그 흔적이 모여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만들죠. 그녀가 반복해서 기억을 묻고 되찾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자신의 삶의 일부를 찾아 완전해지고 싶은 무의식적 본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을 통해 다양한 해석과 사고를 해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녹원 메타버스 전시회 후기-여돌전성기

정혜인

2022, 단언코 여자아이돌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연도.

팀의 변화 이후 'TOMBOY'로 차트를 장기석권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린 '(여자)아이들'을 시작으로, n연속 타이틀 히트를 기록하며 4세대 여돌의 기염을 토한 '에스파'와 '아이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소녀시대'의 'FOREVER 1', 독기와 패기의 아이콘이 된 '르세라핌'과 청순의 새로운 시대를 연 '뉴진스'까지.

나는 이번 메타버스 전시회에서 이 여돌 황금기 중에서도 세대별로 그룹들의 대표곡을 뽑아 소개하고, 리뷰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처음 이 전시를 준비하며 넣으려고 했던 항목은, 이러한 여돌전성기의 '이유'였다.

왜? 왜 사람들은 유독 올해를 여돌전성기로 느낄까. 사실 여자아이돌들의 히트는 늘 있어 왔다. 그런데 하필 2022년이 사람들에게 여자아이돌들의 존재감이 특별하게 돋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구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캐치한 노래, 특색 있는 퍼포먼스, 발전하는 비주얼 디렉팅과 화제성이 대답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기엔 2022에만 해당하는 유일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다양한 세대의 아이돌들이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고르게 히트했다는 점이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다른 소속사에 흩어져 있음에도 5년만에 완전체로 뭉쳐 많은 사

람들에게 또다른 5년을 버틸 에너지를 선물해준 소녀시대와 'Attention', 'Hype boy'등 데뷔앨범부터 큰 화제를 불러모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받은 뉴진스, 그리고 새로운 전성기를 시작한 아이들.

이처럼 데뷔연도에 차이가 있는 아이돌들이 동시대에 동일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2022 여돌전성기'가 가능해진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짜느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막상 이를 메타버스 세계에 구현해내고 보니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느낌이었다. 생각만 해서는 진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조금이라도, 어설프게라도 이를 나만의 방식으로 구현해내면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전시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메타버스 전시회를 마치며

전예원

Q. 녹원에서는 올해 메타버스 전시회가 처음이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생각이 언어를 만나면 글이 되고, 글이 물성을 가지면 책이 된다. 녹원은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인스턴트적 재미만 살아남는 요즘, 쉽게 배설되고 소비되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오래 곱씹고 생각하는 일은 촌스러운 것처럼 비춰진다. 그 "트렌드"에 반기를 든 이화인들이 모인 곳에 발자국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기술적 진보의 선단에 선 메타버스로 전하는 인문학적 가치. 변하는 세월 속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Q. 전시의 주제가 HR의 ESG 트렌드이다. 삶의 의미를 얘기한 개인 글과 거리가 있는 주제인데.

A. 개인 글은 〈돈룩업〉을 보고 쓴 비평문이고, 전시는 ESG를 택했다. 솔직히 말하면 다량의 텍스트로 토해내듯이 쓴 글을 PPT로 만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숫자를, 객관적인 권위를, 남의 언어를 빌렸다. 두 주제 모두 나에게 깊은 흥미를 준다. 일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얘기하고 싶은지 아니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싶은지 그 차이일 뿐.

ESG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관심을 두는 비중이 달라졌을 뿐이다. 넷제로, 임금에서의 평등, 포용적인 조직문화. 암, 마땅히 그래야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E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면, S와 G는 조직과 그 안의 사람들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개념이다. 후자에게 마음을 뺏겼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많지 않은가. 최고보다 최선이 어울리는 세상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좋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HR을 매개로 ESG를 전달하고 싶었다.

Q.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

A. 영악할 줄 알아야, 또는 그러한 관습에 눈 감을 줄 알아야 성공한다는 말은 오래된 세계의 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Q.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기획한 당사자에게 전시회는 어떤 의미였나?

A. 이번 프로젝트는 나무와 같았다. 흙 속의 뿌리가 비바람에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전례가 없는 메타버스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땅 속에 뿌리내리듯이 촘촘하게, 그러나 대담하게 한 선택들이 있었다. 그 경험이 나에게 자양분이 된 것처럼, 타인에게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Q. 마지막 한마디

A. 좀 더 재미있는 주제를 택할 걸 그랬다. (웃음)

녹원 전시 후기

유수정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전혀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초엽의 〈방금 떠나온 세계〉에서 인물들은 인간과 다른 인지 체계를 지닌 곳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계에서의 '비정상'은 현실적인 가능성 밖에 있거나 낯선 방식으로 서술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정착과 이탈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텍스트와 관람 경험의 유기성이었습니다. 관람객이 전시 공간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글의 세계관 속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 비행선에 탑승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글의 화자인 '나'의 일기를 발견하는 흐름으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진행을 도울 NPC와 소품을 적절한 동선에 배치하고 대사를 입력하면서 다소 번번함(ㅎㅎ)이 필요했지만 전시가 글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이라는 멋진 배경을 사용할 수 있었고, 단돈 1,540원에 구매한 음원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무척 즐거웠지만.. 솔직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전시를 보셨는지, 반응은 어떤지 전부 알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던진 화두가 공허한 외침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방명록을 남겨 주신 분들께 더더욱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전시 오픈 시각부터 방명록을 몇 번이나 새로고침했는지 모르겠는데ㅎㅎ 의견을 들려주시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창작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 제 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도슨트로 일하면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제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녹원을 통해 이루게 되어서 기쁩니다!

메타버스 전시 후기

서아림

전시의 형식

녹원에 들어와서 메타버스 전시를 한다고 들었을 때 굉장한 생소함을 느꼈다. 교지부에 대해 아날로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한다고 해도 준비과정이 어려울텐데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 책으로 아무리 읽어봐도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메타버스가 그리 어렵거나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한 편으로는 오프라인 전시보다 훨씬 쉽고 제약이 적으며 재미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 공간을 꾸미는 건 마치 어릴 적 인터넷의 아바타 룸을 꾸미는 것과 같은 재미를 느끼게 했고 이런저런 효과를 적용해보며 나도 그리 최신 기술에 뒤쳐진 사람은 아니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메타버스에 대한 경계심이나 낯섬을 없애준, 그리고 다룰 수 있는 도구를 늘려준 좋은 경험이었다. 메타버스가 아닌 다른 형식에 대해 말해보자면, 전시 내용을 글이나 PPT가 아닌 카드뉴스를 이용해 표현했는데 카드뉴스 제작이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이번에 카드뉴스를 처음 만들어보았는데 평소 발표 PPT 디자인도 어려워 하는 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수용자의 관심을 끌고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평소 접했던 카드뉴스의 디자인과 탬플릿을 많이 참고하였는데도 여전히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이 완성되어 아쉬웠다. 다음에도 전시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더 잘 할 수 있는 형식을 이용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대학가요제라는 주제

무엇을 주제로 삼을까 한동안 고민했다. 후보는 라디오, 우리동네 거리, 재밌게 읽었던 책 등 다양했다. 그리고 최종 주제로 정해진 것은 단 한 번도 본방송을 본 적 없는 대학가요제였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본 한 무대가 머리에 계속 멤돌았고 영상 댓글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래 전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며 응원했던 사람, 대학가요제 자체를 처음 들어보지만 그 무대에 매료된 사람 등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었다. 각자 나이와 추억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대학가요제가 성행하던 시절의 대학생들을 동경하거나 그리워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가버린, 그래서 안좋은 일이 더는 끼어들 수 없는 시절을 미화하고 낭만을 품는다. 그게 아마도 팍팍한 근 몇년 사이에 레트로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알고리즘을 통한, 아니면 몇 년 전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한 대학가요제의 재조명은 그런 노스텔지아와 로망을 모두 담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인 소재가 된 가요제가 왜 여러 사람이 즐거워했음에도 폐지되었는지, 왜 여러 사람이 그리워함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또 그 유행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을 조사해보고 나와 비슷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만한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조사를 끝낸 후 느낀 건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남겨두어야 추억으로서 아름답게 남는다는 것이다. 대학가요제는 시대가 변하고 대학생 문화와 음악시장, TV프로그램의 경향 모두가 변하며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것을 그립다는 이유로 다시 불러 와도 그 때의 감성과 영향력은 오히려 퇴색될 뿐이다. 대학가요제 뿐만 아니라 요즈음 레트로 유행의 영

향으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과거의 것들 대부분이 이런 식일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를 끌고 와 다시 조명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행동은 좋을 지 몰라도 이미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할 이유는 없다고 느꼈다. 당시 그 대학생들처럼 눈 앞의 청춘을 즐기다보면 그것이 미래의 추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단순하다면 단순한 이번 전시의 느낀 점이다.

녹원 메타버스 전시 후기

김별

1) 전시를 준비한 목적과 과정

가장 큰 이유는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이유지만 한번 아이디이가 떠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겼다. 일관된 테마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보고 싶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주제는 '다양한 미스터리 문학을 공유하는 공간 전시'가 되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일방향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보다, 관람객들도 좋아하는 소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재밌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을 잡고 나니 자연스레 어렵지 않은 분위기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미스터리 문학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취향과 성향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가 영미 고전 미스터리에 푹 빠져 있을 때, 누구는 하드보일드 스릴러 계열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 아니면 법정을 무대로 하는 일본의 사회파 소설들에 감명 받거나 안락의자 탐정이 전개를 이끄는 역사 미스터리에 두근거림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기보다 여러 장르로 나누어 최대한 편향되지 않게 책을 골라보자고 결정했다. 평소에 책편식이 심한지라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갔다. 목록을 추리고 나니 그 다음에 막히는 일은 딱히 없었다. ZEP을 처음 써봐서 어떨지 궁금했는데 온라인 전시를 진행하기에 괜찮은 플랫폼 같았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계정을 필수로 만들 필요도 없고 웹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편하다. 모바일 환경이 좀 더 안정적이라면 더 만족했을 듯하다.

2) 소감

일단 온라인 전시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 재밌는 경험이었다. 주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 과제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다른 분들의 주제도 흥미로웠다.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같은 동아리에 모이게 됐는데도 각자의 생각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재밌는 일이다.

개인 전시에서 좀 더 미스터리의 장르적인 이야기도 줄글로 쓰는 쪽이 좋았을지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쓰면 너무 혼자만의 생각만 늘어놓게 될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견식이 부족하기도 했다. 다양하게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꾸만 좋아하는 작가 위주로 편식하고 만다. 그래도 이번 전시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소개할 수 있어 즐거웠다. 좋아하는 책을 알리고 싶어서 기획한 주제인데 오히려 스스로 더 많이 알아가는 느낌이다.

메타버스 생존기

권민경, 배숙경, 조연수

연수

우선 전시물인 카드뉴스 인터뷰가 만들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인터뷰어 컨택 → 질문지 제작 및 전달 → 카드뉴스 템플릿 제작 → 회신받은 답변지를 토대로 카드뉴스 제작

인터뷰어 선정 및 컨택은 숙경님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숙경님께서 발 벗고 나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TMI지만 현재 인턴 일을 하면서 인터뷰어분께 연락드릴 일이 있었는데, 선정은 이미 되어있고 연락만 드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됐다. 그때 숙경님 생각이 조금 났다. (숙경님 최고예요) 질문지는 각자 드리고 싶은 질문을 수합하여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질문 수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다. 꼼꼼하게 답변해주신 이빨요정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카드뉴스 템플릿 역시 원하는 컨셉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컨셉만 있을 뿐 0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던 나의 후보가 선정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다. 또 템플릿만 있으면 제작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가독성을 살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던 것 같다. 남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얼마나 디테일적인 것에서부터 나오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거듭 생각하게 된다. 참고로 템플릿의 레퍼런스는 네이버 라인이었는데, 작가님께서 네이버에서 웹툰을 연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메타버스(ZEP) 제공소스만을 활용하며 인터뷰 컨셉을 구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분명 싸이월드 마이룸도, 쥬니버네이버 동물농장도 꾸며봤는데 왜지?싶었는데, 그때도 꾸미는

걸 어려워해서 공허하면서도 난잡하게 나의 공간들을 방치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다. 그래도 힘든 싸움 끝에 잉여계단을 만들어내어 상당히 기뻤다.

다만 메타버스 맵 에디터를 경험하며 점점 더 메타버스의 의의 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다. 맵 디자인은 기업/단체의 경우 외부 커미션을 맡겨 메타버스의 아이콘을 활용하지 않고, 맵 기능 대부분은 외부링크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매개체적 기능도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자체가 사이트 간 연결하는 하이퍼링크의 탄생으로 무한한 발전을 이루었긴 하나, 의문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었다. 그래도 물질적이지 않은 것을 물질적인 것처럼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신기했다.

교지 글 작성에 이어 메타버스 전시까지 두 팀원분들과 함께해서 내가 할 수 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소속 집단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팀으로 진행한 덕에 두 일정 모두 재미있게 진행한 것 같다. 영화, 인터뷰, 메타버스 모두에게 한 발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숙경

전시 작품 주제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다가 인터뷰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것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네이버 웹툰 '여대생존기'가 떠올라 이빨요정 작가님의 인터뷰를 제안했고, 팀원분들도 동의하여 작가님의 인터뷰를 전시 작품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작가님과의 연락을 맡아 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사전질문을 준비하고, '톡이나 할까?'의 형식에서 착안해 웹툰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신저 형태의 디자인을 고안했다. 녹원을 통해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 중 하나가 창작 분야의

작가님 인터뷰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의미가 깊었다.

전시 작품을 마무리하고 네이버의 '제페토'를 활용해 메타버스 전시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다. 여러 메타버스 이벤트나 특강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공간을 직접 꾸며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팀원분들과 기능을 알아가며 공간을 채워가는 재미가 있었다. '제페토'에서 제공되는 오브젝트나 벽지, 바닥재 등의 아이템과 배경은 다소 제한적이었고, 오브젝트의 방향을 조정할 수 없어 아쉬웠다. 하지만 다양성에서 아쉬운 점은 '나만의 오브젝트' 기능으로 보완했고, '제페토'가 무료 플랫폼이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잘 구축된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디자인 부분에 걱정이 많았는데 연수님께서 전시 작품 템플릿을 비롯해 조예대 강의실 등 전체적인 틀을 잘 잡아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웹툰 에피소드에서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곳을 추려 왼쪽에 '강의실'과 '클럽', 가운데 'ECC의 잉여계단과 둥근 테이블', 오른쪽에 '조예대 강의실'과 'ECC 스타벅스 카페'로 구성했다. 인터뷰 내용은 각 공간마다 나누어 전시했는데 작가님의 닉네임에서 착안한 이빨 요정 아이콘으로 전시 위치를 표시했고, 처음 출입구에서 이를 안내했다.

작가님과 우리팀이 함께했던 노력을 생각하며 많은 벗들과 이 작품을 공유하고 싶었고 다른 부원분들도 정성스레 전시 공간과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디자인한 포스터로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관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컸다. 우리팀은 메타버스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피드백을 하나도 받지 못해 더욱 아쉬웠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깨달을 수 있었다. 팀원분들과 방학부터 몇

개월에 걸쳐 시간을 쪼개가며 영화 보고 글 쓰고 전시도 준비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경험이 크게 남았다. 연수님, 민경님께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2년 간 녹원에서 소설 공동 집필, 릴레이 소설 쓰기, MBTI를 반영한 영화 감상문 쓰기, 웹툰 작가님과의 인터뷰 메타버스 전시 등 주로 함께 하는 활동들을 직접 기획했는데, 이를 통해 협업의 어려움도 느꼈지만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사고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메타버스 전시회는 메타버스의 활용과 인문학과 메타버스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민경

전시회를 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인물 그리고 가상의 전시장인 제페토를 꾸미는 것까지가 전시의 과정이었다. 영화 '디 아워스'에서 전시회에 보일 주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러 가지 주제가 많았지만 '디 아워스'가 여성의 주체성과 여성의 삶에 대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흘러간 영화였기에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여성에 초점을 맞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인물이 추천이 되었지만, 그중 대학생의 삶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는 분과 투표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자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선정하고 작가님에게 보내여 답장을 받았다. 인터뷰를 끝나고 본격적으로 전시장을 기획하였다. 어떠한 공간을 만들 것이며, 어느 위치에 무엇을 놓을 것이고 학교의 어떤 장소를 전시장에 나타낼 것인가와 같은 여러 가지 전시회와 관련된 것을 서로 얘기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다들 처음 이용해보는 메타버스인 제페토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계속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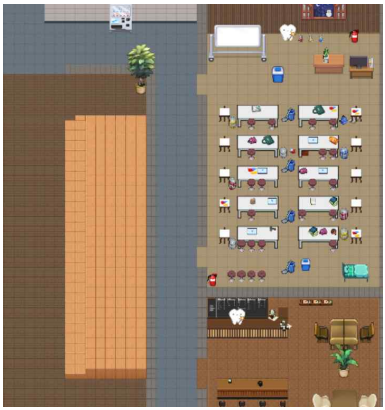
해보며 조금씩 익숙해지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찾고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공간을 꾸미며 특히 여러 의견을 나눈 장소가 있다. 바로 전시장 한 가운데 위치하는 계단이였다. 학교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층으로 계단을 쌓고 싶었지만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웠다. 그래도 여러 기능들을 이리저리 활용해보며 계단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2번 동안 함께 공간을 꾸미며 점점 모양을 갖추어 갔다.

전시를 하며 다른 조의 전시장에도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였다. 내가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전시장에서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과의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메타버스만의 신기한 점도 있었다. 그러한 특징으로는 시간이 가장 크게 느껴졌다. 실제로 전시회를 보기 위해선 준비하는 시간과 가는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전시회를 가기가 많이 망설여지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페토를 통해 전시를 보는 시간만 들어 시간이 단축되는 점은 너무나도 좋았다. 다른 조의 전시회를 보는 것에 있어서 감탄과 설렘이 가득하였지만, 막상 나의 전시장에 방문객들이 와 구경하는 것을 상상했을 땐 긴장감이 가득하였다. 혹시나 실수를 한 부분은 없을까부터 시작하여 관람객이 전시회를 보는 데에 있어 불편을 느낄만한 곳은 없을까와 같은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었다. 그뿐만 아니라 작가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표현하거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잘 전해졌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전시회를 준비부터 진행할 때 그리고 끝이 날 때까지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하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과정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의 전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신기하기도 하며 걱정도 되었다. 간단한 영상 편집도 못 하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예상처럼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꾸미며, 어떤 내용을 삽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나, 처음 이용해보는 '제페토'는 공간에 접속하는 것부터 사물을 공간 안에 배치하고 크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제페토를 이용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지만 전시회 공간 꾸미기를 마치고 나니 뿌듯함이 크게 다가왔다. 전시회를 끝냈다는 뿌듯함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았다는 사실이 뿌듯함도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 녹원 활동을 하며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메타버스부터 제페토까지 혼자였으면 하지 않았을 것을 할 수 있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존재하였지만, 원하던 결과를 만들고 이루고 나니 그에 대한 좋은 기분은 어려움보다 더욱 크게 다가왔다.

전시 작품 인터뷰 표지



메타버스 전시 공간 일부

전시 후기

권나현, 김정림, 고보경

Q. 전시를 어떤 목적으로 준비했나요?

동아리부원들끼리 경험한 전통을 알리고 싶었어요. 특히 전통 중에서도 전통차 체험이 가장 인상깊었기 때문에 이를 전시하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미래를 한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전시의 결과에 만족하나요?

〈권나현〉

게더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을 능숙히 다루지 못해 저희가 논의했던 방향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만 두고본다면 아쉬움에 보람을 곁들인…느낌입니다. 그래도 정림이와 보경이와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2022년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나열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메타버스로 풀어낼지 이야기하는 시간, 한껏 게더타운 꾸미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시간이 유독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네요.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꼭 전하고 싶은데요. 제일 막내였던 보경이가 이끌어주고 도와준 덕분에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진들을 많이 남겨준 정림이 덕에 피피티 사진들을 근사히 꾸밀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보경아! 정림아!

〈김정림〉

메타버스를 처음 접해봐서 아무래도 상상한 것과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작동방식도 잘 몰랐구요. 그래서 팀원들과 어떤 내용으

로 구성할지 정하고 각자 피피티를 만든다음 자신이 만든것을 메타버스에 전시하려고 할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컴퓨터나 기술에 많이 약한 편이라 혼자서 잘 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대로 제가 메타버스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제가 만든 피피티를 올리는 것까지 어렵게 느껴졌지만 팀원들이 옆에서 알려주고 도와줘서 무사히 전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가 익숙하지 않아 처음올린 자료들이 대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처음 도전한 것 치고는 수월하게 끝낸것 같아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보경〉

메타버스로 직접 방을 꾸며보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어려웠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해주셔서 덕분에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ㅎㅎ 무엇보다도 메타버스에 자료와 노래 파일이 첨부된다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굳이 해당 문서를 클릭하지 않아도 그곳에 있으면 자동으로 문서가 화면에 보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 있는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 버전이 달랐는지 만든 자료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아쉬움 때문에 전시 결과에 아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ㅜㅜ

그래도 구성원끼리 어떠한 전시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토의하는 과정이 재밌었고 내가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다도와 관련된 방을 꾸미면서 물건 배치와 방 분위기 등을 생각하는 게 어려웠지만 막상 결과물을 보니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첫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라서 많이 서투르고 부족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다음 메타

버스를 활용할 때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Q: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권나현〉

이번 질문에서는 게더타운보다는 저희의 전시 주제 '전통차, 전통찻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통찻집, 사실 이 장소는 녹원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녹원 속에서도 보경이와 정림이를 만나지 못했으면 가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차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친구와 수많은 카페를 제쳐 두고 전통찻집을 가는 만남은 일상적이지 않으니까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메타버스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통차의 종류와 효능을 깊이 알아가고 동시에 근처 전통찻집을 찾아봄으로써 "전통차 마시기"라는 취미를 지속해야 할 이유를 확실히 찾게 되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훌륭한 취미를 알게 된 시간이었기에 이 경험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의 전시후기를 읽고 계신 독자분이 계시다면, 전통차와 함께 녹원의 글을 편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ㅎㅎ

〈김정림〉

처음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것부터 메타버스에 ppt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다 처음해보는 것들이라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한번 해보니 다음번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가상현실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이 전시가 아니였으면 저는 메타버스에 접속할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세상 흐름에 뒤쳐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메타버스하면 '아! 나 메타버스에 전시해봤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메타버스의 작동방식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전시한 내용물 또한 전통차라는 의미있는 내용이여서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학교 동아리원들과 잊지못한 추억을 만든 것 같고 이를 또 메타버스에 전시까지 해놓았으니 이 기억은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통차와 메타버스의 세계 모두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보경〉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통 차와 관련된 주제로 전시를 한 만큼 전통 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차 종류와 계절에 따른 차 종류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통차 종류에 대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차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 카페 음료보다 차가 맛은 없어도 건강에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따뜻한 차를 한 번 마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시를 위해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을 때 심신의 안정에 매우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많을 때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며 다시 생각해본다면 굳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많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이화여자대학교 주변의 찻집을 찾아보면서 시간이 남을 때 친구들과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가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2022 녹원 66호 교지『우주의 중첩』

발행일 2022년 11월 20일

지은이 | 녹원 66기
펴낸이 | 녹원 66기
펴낸 곳 | 녹원 66기
편집 | 녹원 66기 공동편집장 배숙경, 전예원
표지 | 녹원 66기 조연수

내용의 일부와 전부를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